

자이언트스텝, 'The Greatest Love' 전시 흥행에 8월까지 연장... "IP 사업 확장 가속화"

- ▶ 글로벌 흥행 IP 기반 미디어아트 전시 'The Greatest Love', 관람객 호평 속 8월까지 연장 운영 확정
- ▶ 지난 6개월 간 3만 명 이상의 관람객과 4.94/5 평점으로 높은 만족도 기록
- ▶ '체험형 전시 IP'를 기반으로 기독교계 협업 및 사업 확장 본격화

<2026-04-30> 인공지능(AI) 및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 자이언트스텝(289220)은 회사가 기획·제작한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The Greatest Love'의 전시 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첫선을 보인 이번 전시는 당초 6개월 운영 예정이었으나 지속적인 관람 수요와 긍정적인 시장 반응에 힘입어 전시 기간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전시는 4월 13일 기준 네이버 리뷰 평점 4.94/5를 기록하는 등 높은 관람 만족도를 달성하며 지난 6개월 간 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The Greatest Love'는 AI 캐릭터라이징 기술과 리얼타임 엔진 등 자이언트스텝의 핵심 기술력을 집약해 구현됐다. 25m 커브드 스크린 기반의 이머시브 극장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이 단순히 콘텐츠를 보는 것을 넘어 전시 속 세계관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여기에 그래미상 2회 수상에 빛나는 황병준 감독의 몰입형 사운드와 영화 '킹 오브 킹스'의 최정인 음악감독이 참여해 콘텐츠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 전시는 기존의 정형화된 종교 콘텐츠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미감과 인터랙티브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시즌에는 교회 및 교육 기관의 단체 관람이 이어졌으며 비신자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다가가는 고품질 교육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실제 사업 확장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자이언트스텝은 오는 5월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진행되는 대형 기독교 페스티벌의 체험 전시 파트를 'The Greatest Love' 전시 컨셉으로 기획·제작했다. 또 교계로부터 지방 전시 유치와 상설 전시 협업 요청도 지속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해당 전시의 하이라이트 콘텐츠를 몰입형 포맷으로 상영하고 싶다는 제안도 유입되어 있는 상태다. 전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IP 사업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자이언트스텝은 이번 전시의 장기 흥행을 바탕으로 단일 전시 콘텐츠를 넘어 지속 확장이 가능한 '전시 IP 비즈니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향후 종교,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GIANTSTEP

확대하며 몰입형 콘텐츠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IP 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자이언트스텝 관계자는 “첨단 기술이 관객의 정서적 치유로 이어지는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시한 것이 주효했다”며 “압도적인 기술력과 예술적 연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글로벌 실감형 콘텐츠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The Greatest Love' 전시, '어둠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작품